

결혼기념일을 보내면서

지금도 나는 결혼기념일을 혼동합니다. 9월 3일인지 5일인지... 아내에게 결혼 상대자로 나타났던 사람들 거의를 나는 알고 있습니다. 소위 '사'자 들람의 직업을 가진 유망한 젊은이들과의 보장된 삶을 뿌리치고 아내 표현대로 '귀순용사'같던 나를 선택했습니다(사실 나도 목'사'입니다)

예물로 해주었던 금목걸이는 내 어금니로 변한지 오래입니다 결혼 때 샀던 옷을 아직도 입으면서 '살이 찌지 않아 잘 맞는다'고 들려댁니다. 배웃이 아내에게 해 준 처음이자 마지막 옷이라던 "접시꽃 당신"의 시인이 over-lap됩니다.

할인쿠폰으로 10% 혜택을 받는 곳에서 기념일 식사를 했습니다.

맛보다 미안함이 앞서 어떻게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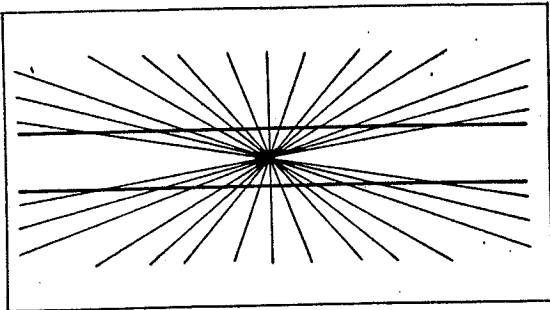
반찬 하나 만들기는 아끼면서 교우 대접하기에 손이 큰 마음 씩씩이에 그저 고마울 뿐입니다.

사모로 마음껏 기표지 못했던 십년의 세월,

이후 십년은 기증 퍼주겠다고 다짐하지만

기미가 점점 늘어가는 아내 얼굴만 보면 내가 기가 죽습니다.

\*\*\*\*\*



중앙의 가로로 놓여 있는 두 선은 휘어져 보이지만 옆으로 세워 보면 직선의 평행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와 함께 하지 않는 한 이 세상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굴절시키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일 2:17) -

교회목표 생명의 예수 살의 기쁨	'99교회표어 "첫 단추를 잘 끼웁시다" <b>City 한인 교회</b> City Korean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익명성 -명예
제 1권13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1999년10월10일
☎262-3717/021-292-1639. ☐229 Ponsonby Rd. Ponsonby(Samoan Church)		

기독교인도 화장(火葬)할 수 있습니까?

기독교인도 화장(火葬)할 수 있습니까?

Q) 언로하신 어머님께서 화장을 하라고 자주 말씀하십니다. 좁은 우리 국토에 묻혀서까지 자리를 차지할 생각이 없노라고 하십니다. 화장(火葬)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재립때 어떻게 되는지 또 아들로써 사후에 서운한 생각이 들텐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요?

A) 먼저 어머님께서 자신보다 국토의 현실을 감안하여 화장을 원하신다니 그 사려 깊은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기독교의 장례식은 전통적으로 매장입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화장을 한 예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묻히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반드시 매장을 명령한 것은 아닙니다. 화장도 성경적으로 무방합니다. 그 이유로

- 1) 장례란 민족의 문화나 풍습에 관한 것이지 기독교 신앙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신 영혼은 이미 하늘로 가셨기에 매장이든 화장이든 그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 2) 재립때 잠자는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난다고 한 것은 유대 나라가 매장 문화권이기에 그렇게 표현 한 것입니다. 매장이든 화장이든 결국 육체란 티끌처럼 흩어지고 맙니다.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시키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어떤 상태로 있는지 다시 부활시키심을 믿는 것입니다.
- 3) 부모님께서 화장을 원하셨다면 유지를 따르는 것이 효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시신을 의학해부용으로 기증한 분이나 장기를 기증한 분의 부활도 하나님께서 온전한 모습으로 부활시키십니다.
- 4) 우리 나라의 좁은 땅, 협소한 환경의 현실을 직시하고 기독교인이 솔선 수범해야 할 것입니다. 장례식도 간소화해야 합니다.
- 5) 고인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주저하신다면 그럴 때를 대비하여 부모님 생전에 후회 없는 효심을 다하시고 추모일에 기념할 만한 유품, 사진, 비디오, 녹음 테이프를 준비하시면 성묘를 대신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 주 일 예 배

오후 1:30

\*묵 도  
Silence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er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 도 자

\*찬 송  
Hymn

34 장

다 같이

\*성서 교독  
Response Reading

13 (시 34편)

\*신앙 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찬 송  
Hymn

210 장

다 같이

기도  
Prayer

이지훈 집사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마태복음 8:1 - 4

복음송가  
Praising

다 같이

주일학교  
Sunday School

아동부

설 교  
Sermon

'산 아래 동네에서는'

김성국 목사

설교후 기도  
Prayer

찬 송  
Hymn

336 장  
(마지막절은 일어서서)

다 같이

\*헌금 기도  
Offertory Prayer

인 도 자

\*응답 송  
Response Song

"좋은신 하나님"

다 같이

\*위탁의 말씀

인 도 자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친교실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으로 계속 됩니다)

일자	기도	헌금봉헌	예배안내
3	최윤호	한 건	한 건
10	이지훈	지윤수	지윤수
17	한중배	김 효	김 효
24	송정섭	서백화	서백화
31	지윤수	최윤호	최윤호

'99년도 교회표어 "첫 단추를 잘 끼웁시다"

<실천사항>

\*신 앙: 기초성경공부이수

\*주일예배: 정장으로 예배참석

\*생 활: 남의 이야기는 듣지도 하지도 맙시다

<등록규정>

\*3주간 예배,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유로운 등록결정 판단을 위해 3주간 등록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 교회소식

1. 금주 구역예배는 쉽니다.-'금요가정동시예배'

지난 금요예배를 통해 기초성경공부를 마쳤습니다.

\*이수자:남순애, 방성주, 서백화, 송정섭, 안은주, 이지훈, 최윤호.

지윤수(구원론) 김 효(구원론)

\*이수자는 정식교인으로 직분임명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다음교육: 11월 매주 목요일 저녁 7:30

\*이수성도께서는 한 가정씩 대상자와 함께 교육에 helper로 참여하여 주십시오

2. 금주 금요일은 각 가정 동시에 "금요가정동시예배"를 드려주십시오

\*일시: 금요일 밤 10시

\*가정예배순서지 참고

3. 수요일예배를 위한 기도회를 수요일 저녁 7:30에 사택에서 갖습니다.

4.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수요일예배를 위한 예배당 사용

5. 임시 등록교우회의

tea time 후 임시등록교우 회의를 갖겠습니다.

6. 성찬식

10월 넷째주일(24일)에 성찬식을 가지면서 창립 100일을 인도하심에 감사를 갖겠습니다.

7.예고

다음주간부터 2주간은 "마태의 주간"으로 정하여 마태복음을 완독하는 주간으로 정하여 지킵니다.

\*하루 읽을 분량: 1일 2장+a

8. 교우소식

\*방성주 집사, 한국 방문 위해 월요일 출국. "walking with Holy Spirit".